

일본인이 필사해준 통신사 기록 《부상일기》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의 고서들 — 12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조 형이 기록한 《부상일기》는 1651년에 왜장 이에미츠가 죽고 이에츠나가 세습하자 효종이 국서를 전하기 위해 사신으로 보냈던 통신사 일행의 일기다. 이 책은 대한제국 시대에 조선을 침략하던 일본군대의 통역관에 의해 발굴돼 친절하게 주석까지 붙여 필사됐다. 《부상일기》 필사본에는 23장의 일본어 기록이 덧붙여 있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부상일기》가 여러 차례 필사되면서 전수된 과정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보냈던 사신을 통신사(通信使)라고 했는데, 중국에 해마다 보낸 것과는 달리 조선 후기에는 도쿠가와(德川) 정권의 장군이 세습할 때 맞춰 보냈다. 정사·부사·종사관을 비롯해 4백~5백명의 사절단이 파견됐는데, 이들이 남긴 일기나 시문집을 엮은 《해행총재(海行摠載)》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필사본 28책인데, 19세기 초까지 한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해행총재》에 실리지 않은 통신사 일기나 시문집이 이따금 발견되는데, 조 형(趙珩)이 기록한 《부상일기(扶桑日記)》는 그 동안 학계에서도 잊혀졌던 자료다. 대한제국 시대에 조선을 침략하던 일본군대의 통역관에 의해 발굴돼 친절하게 주석까지 붙여 필사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형태로 엔칭도서관에 소장됐다.

1년에 걸친 외교행적 기록해

1651년에 일본의 장군 이에미츠(家光)가 죽고 이에츠나(家綱)가 세습하자 효종이 1655년에 국서를 보내 축하했는데, 정사는 조 형, 부사는 유 창, 종사관은 남용익이었다. 공식적인 기록은 종사관이 맡았기에, 남용익이 기록한 《부상록(扶桑錄)》 앞부분에는 485명 수행원 가운데 백여명의 이름과 직책이 실렸고, 뱃사공이나 종들의 숫자까지 밝혀져 있다. 효종이 관백(關伯)에게 보내는 국서와 별폭(선물목록), 대마도주에게 보내는 서계(書契)와 별폭 등이 기록됐다.

그러나 남용익의 일기는 4월 20일 뒤에 몇편의 시가 실리다가(5월) 21일로 건너편다. 26일에 아버지가 있는 군위에 이르렀다가 눈병이 심해져 20일간 머무는 바람에 일기가 중단된 것이다. 중간에 짧은 기록을 놓치게 되면, (5월) 21일을 4월 21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

런데 조 형은 날마다 꼼꼼히 일기를 기록했기에, 《부상록》에 빠진 것을 보완해준다.

이 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한 부분은 풍랑을 겪으면서 대마도까지 건너가는 이야기와 일본인들의 부탁을 받아 글을 지어주는 이야기, 국서를 전달하는 이야기, 일광산에서 토쇼궁(東照宮)에 참배하는 이야기다. 정사 조 형의 배는 가장 튼튼한데다 경험이 많은 뱃사공들이 탔으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는데, 종사관 남용익의 배는 비교적 약한데다 뱃사공들도 경험이 적었으므로, 같은 풍랑 속에서도 키가 부러지고 예물들이 바닷물에 젖고 종사관 일행은 배멀미로 고생했다. 국내에서는 이같이 큰 풍랑을 겪을 기회가 없었기에, 목숨을 건 항해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요 이야기거리였다.

에도(東京)까지 가는 길에는 통신사들이 묵는 숙소가 여러 곳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 영주들이 융숭하게 접대했다. 도쿠가와 막부에서 통신사 접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수준이 뒤떨어진 일본인들이 통신사 일행으로부터 수준 높은 글이나 글씨, 그림을 얻기 위해 환심을 사는 방법이기도 했다. 조 형은 부탁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성의에 따라 자신이 직접 지어주거나, 사자관(寫字官)을 보내 글을 써줬다. 화공(畫工)이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5백명이나 되는 조선 사절단의 행렬 자체가 구경거리여서 수많은 일본인들이 길가에 나와 구경하기도 했지만, 조선 문인들이 시 짓는 것을 구경하고 글씨라도 하나 얻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번 사행길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도쿠가와 선대의 사당이 있는 일광산(日光山)에 효종이 쓴 어필(御筆)을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측에서 사신들이 머물 집을 새로 지어놓을 정도로 중요한 행사였다. 10월 18일 일광산에 도착했는데, 먼저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의 묘(廟)인 토쇼궁에 가서 향을 태우고 재배했다. 효종이 보낸 어필을 사당에 봉안하고, 독축관(讀祝官)이 축문을 읽은 뒤에 또 재배하고 축문을 불태우려 하자, 일본측에서 “이것은 대대로 전할 보물이니, 예(禮)로서는 불사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남겨두기를 청한다”고 했다. 축문은 읽은 뒤에 불사르는 것이 예법에 맞지만, 조선 임금의 보낸 글이니 보물로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바친 축문이 조선 악기와 함께 린오지(輪王寺)에 남아 있다. 효종이 보낸 석전(釋奠) 악기는 원래 10가

지였는데, 지금 린오지에는 축과 어 두 가지만 남아 있다.

일본 육군통역관이 발견해서 필사해

일본은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맺은 이후 많은 문화간첩을 내보냈는데, 특히 동학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군을 파견할 무렵에 조선어를 잘 아는 통역들을 많이 내보냈다. 이들은 가깝게는 청일전쟁의 발판을 준비했지만, 멀리는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서 조선의 문화문물을 조사했다.

현재 엔칭도서관에 소장된 《부상일기》 필사본에는 23장의 일본어 기록이 덧붙여 있는데, 이 설명을 통해서 《부상일기》가 여러 차례 필사되면서 전수된 과정을 알 수 있다. 한문 필사본을 처음 발견한 일본인은 용산 육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육군통역 이마니시 가메만타이(今西龜滿太)인데, 1913년 서울에서 조선인으로부터 90장본 필사본을 구입하고 주석과 발문을 붙였다.

그가 처음 구매한 필사본은 조 형이 기록한 본문이 86장이고, 뒷날 조태억이 덧붙인 글이 4장, 합해서 90장 분량이었다. 그는 《부상일기》 원본을 살펴보고, 일본 현지에서 기록한 일기가 아니라 조선에 돌아와서 초고를 정리한 일기라고 결론내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먹빛이 같을 뿐만 아니라 글자체도 한결같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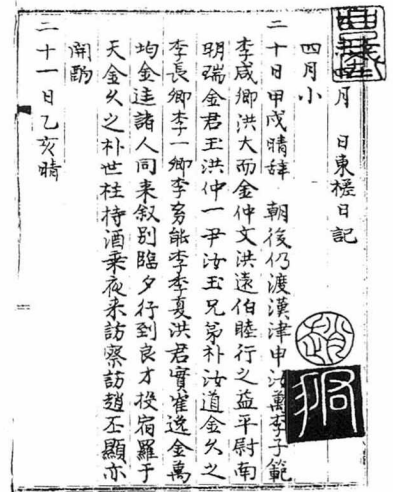
그는 러일전쟁 때부터 당시까지 조선에 10여년 동안 파견된 육군 통역이였기 때문에, 256년 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조선인 사신이 기록한 일기를 보면서 감회가 더욱 깊었다고 한다. 당시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의 문물이 조선인에게는 어떻게 보였는지, 일본 유학자들의

“이 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록한 부분은 풍랑을 겪으면서 대마도까지 건너가는 이야기와 일본인들의 부탁을 받아 글을 지어주는 이야기, 국서를 전달하는 이야기, 일광산에서 토쇼궁에 참배하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는 이같이 큰 풍랑을 겪을 기회가 없었기에, 목숨을 건 항해는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고 이야깃거리였다.”

태도와 문장이 조선 사대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임진왜란 때 잡혀왔다가 그때까지도 돌아가지 못한 포로 후손들의 이야기, 조선 사신이 도쿠가와 막부의 장군을 만나는 모습과 일광산(日光山)에 참배하는 모습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당시의 특종이어서 아무리 읽어도 지리한 줄을 몰랐다고 한다.

그가 이 책을 재미있게 생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조 형보다 57년 뒤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조태억의 기록이 그 뒷부분에 덧붙여 있었기 때문이다. 조태억은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조 형의 증손자인 조경명에게 《부상일기》를 빌렸다. 사신이 오고가는 길은 정해져 있었으니

별문제가 없었지만, 수시로 부딪치는 외교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조경명은 《부상일기》를 빌려주면서, 천태산사(天台山寺)에 증조부의 초상이 잘 모셔져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본 측에서 조선 사신을 접대하며 초상을 그려두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태억은 그 부탁대로 조 형의 초상이 제대로 모셔져 있는지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시를 짓고 짧은 발문까지 써서 《부상일기》 뒤에 덧붙였



《부상일기》 첫장인데, '풍랑 조씨 장서'라는 뜻의 풍장(豊藏)과 조(趙) 등의 도장은 모두 일본인들이 본떠 만든 것이다. 표지와 본문에는 모두 부상일기(扶桑日記)라고 돼 있는데, 첫장만은 당시 통신사 일기에서 흔히 쓰던 대로 동사일기(東槎日記)라고 했다.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곳, 바로 일본을 가리키며, 동사(東槎)는 동쪽으로 배(돛목)를 타고 갔다는 뜻이다.

다. 그리고 조 형이 청견사나 아미타사·본련사에서 주지들에게 지어 준 시까지 빼껴왔다. 일본에서는 그때까지도 조 형의 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 형의 문집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태억이 덧붙여준 기록들도 소중한 자료가 됐다.

한국과 일본 지식인의 국제교류 증언해

이마니시는 《부상일기》 원본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10행 20자의 형태를 지키면서 필사했고, 조태억의 시와 발문은 미농지를 놓고 윤곽을 그대로 베꼈다. 도장까지도 그대로 베껴, 원본의 모습을 살리려고 애썼다. 조 형과 조태억의 행적, 이들이 만난 일본인 유학자들의 행적은 물론, 심지어 임진왜란에 포로로 잡혀왔던 선비 이진영과 조 형을 찾아와 호소했던 그의 아들 이진적의 생애에 대해서까지 자세한 주석을 붙일 정도로 그는 이 책을 소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마니시가 발견한 필사본은 조태억이 조경명에게서 빌려갔다가 4장을 덧붙여 돌려줬던 책인데, 그는 이 형태를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1부를 필사해 간직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917년에, 역시 용산 육군사령부에 근무하던 육군 통역 하시모토 데이수케(橋本貞造)가 다시 필사했다. 그는 1904년에 주차군사령부 오노(大野) 참모의 수행원으로 원산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통역인데, 조선의 고소설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권 필사하거나 소장한 인물이었다.

이 책이 지금은 하버드대 엔칭도서관에 소장돼, 《부상일기》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조 형으로부터 조경명과 조태억을 거쳐, 이마니시 가메만타이와 하시모토 데이수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조선으로, 다시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지금도 국제교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 ■